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만남: 한국사회와 기독교\*

**이 경 직**

(천안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의 자유주의 수용

### III. 서구사회에 나타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 공동체주의의 등장 배경
2. 자유주의자의 자아 개념
3. 자유주의의 중립주의
4. 공동체주의
5. 자유주의자의 반론

### IV. 나가는 말

---

\* 이 논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의해 쓰여졌다.

---

• 국문초록 •

---

이 글은 현대윤리학의 주요 논제 가운데 하나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 비추어 한국사회의 윤리적 정황을 분석하고 유교윤리와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한국사회내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기독교사회윤리학적 방향제시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의 모태인 자유주의의 기본전제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공동체주의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논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각각의 반론들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유교윤리와 어떤 연관을 지니고 있는지의 문제를 특히 공동체주의와 연관지어 고찰하였다. 또한 한국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족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사회윤리

---

K C I

## I. 들어가는 말

2003년 겨울은 IMF때보다 경제사정이 더 어렵다고 한다. 세계화를 내세운 신자유주의<sup>1)</sup>의 물결이 한반도에 밀어닥치면서 한국은 빠른 속도로 20대 80의 사회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IMF 이후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을 다시금 해야 할 상황이다. 자유경쟁 시장 안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주의로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도리어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분열과 갈등을 낳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세계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는 많은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국가를 넘어서 세계인을 하나의 경제질서 속에 넣어서 이상적 지구촌을 이룩할 것이라는 환상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들이 이동성이 강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바닥을 향해 경주한 결과 인건비가 낮아지고 사회비용과 환경비용이 축소되었다. 또한 자본을 지닌 부국과 그렇지 못한 빈국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고 모든 가치들이 경제적 이익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성과 생태학적 균형이 파괴되고 있다. 예를 들어, 447명의 억만장자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인구 절반의 수입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원인은 초국적 자본에 있기에 노동자는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하지만 세계적 경쟁을 뚫고 초국적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노동자를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1)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려 했던 국가가 다시 문제가 되자 시장이 이제 해결사로 돌아온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손호철,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안병영, 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서울: 나남출판, 2000), p.381 참조.

2) 제러미 브레처 외, 『아래로부터의 세계화』(경기: 아이필드, 2003), pp.11-12, p.14, p.28, p.31.

정부는 강해야 한다. 결국 세계화 물결속에서 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게 된다.<sup>3)</sup>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국가를 축소시키기보다 국가 기능을 조정한다고 여길 수 있다.<sup>4)</sup> 또한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하층계급이 커지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건강한 중산층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sup>5)</sup> 20대 80 사이에 전면적인 계급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6)</sup>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따뜻한 혈연공동체, 지역 공동체 등을 그리워하며,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분열과 소외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편화된 개인들을 유기적으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공동체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일 수도 없다. 이는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다원주의적 가치와 규범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다.<sup>7)</sup> 따라서 한민족의 공동체성 회복을 주장하려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이어야 하며, 어떤 목적을 지녀야 하며, 그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삶의 의미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에 대해 철학적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른 점을 지닌다. 자유주의의 배경을 이룬 근대국가는 국가의 영토를 분명하게 정함으로써 국가 안에서 브르조아가 자유롭게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배타적 시장을 확보해주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어들며, 기업의 이윤 추구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sup>8)</sup> 그런데 그 결과 민주주의도 약화된다. 시민들에게

3)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서울: 문화과학사, 2000), pp.362-364.

4) 손호철, op. cit., p.383.

5) 임혁백, 『세계화와 민주주의: 기회와 제약』, 안병영, 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현실.대응』(서울: 나남출판, 2000), pp.72-73.

6) 손호철, op. cit., pp.383-384.

7) 임혁백, op. cit., p.77.

8) 강상구, op. cit., pp.347-352.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자본이나 기업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신자유주의의 모태인 자유주의의 기본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검토하면서 공동체주의자들의 공동체성 회복 주장을 따져보고자 한다. 또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재반박도 검토하면서, 양 진영의 장단점을 재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장점들을 모두 살리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방안은 남북한 통일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보여줄 것이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남한과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로 만날 수 있는 길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제거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남한에서 그러한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 자유주의에 토대를 두는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도 빈부격차, 세대 갈등 등을 극복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남북한 민족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유주의자의 논의 방법은 비역사적이고 이성적인데 반해, 공동체주의자의 논의 방법은 역사적이거나 맥락적(contextual)이다. 자유주의자는 시대와 무관한 보편적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반면에, 공동체주의자는 시대에 적합한 사회질서를 추구해야 한다고 여긴다.<sup>9)</sup>

9) 황경식, 「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인가? - 개인권과 공동선의 갈등과 화합 -」, 『철학연구』, Vol.45, No.0 (1999), pp.1-2.

## II. 한국의 자유주의 수용

서구 근대사회에 나타난 자유주의는 중세와는 다른 인간관을 지니고 있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다. 예를 들어, 칸트는 이성을 사용할 때 외적 권위나 감정, 경향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할 때 인간은 윤리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는 자율적 자아가 될 수 있다.<sup>10)</sup> 외적 권위 등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인간 이성은 자유를 지니며,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도 개인의 자율적 이성에 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기본권도 개인에게 속하며, 타인이나 사회조직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sup>11)</sup>

그런데 사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뜻한다. 서구 자유주의가 제국주의와 양립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유주의자는 개인의 재산권만 보장해주면 어떤 정치체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12)</sup> 정치적 자유를 일차적 관심사로 두는 입장은 자유주의라기보다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서구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개념을 ‘자립’ 개념에 가깝게 여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사회의 거대한 힘이 창의적 개인을 억압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탁월한 개인은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이 서양의 자유 개념을 자립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sup>13)</sup>

기독교와 함께 들어온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로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한 중인층과 상인층이었다. 주로 기독교인들이 주축

10) 송재룡, 『포스트모던 시대와 공동체주의』(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pp.90-91.

11) 김정오, 「공동체주의와 법에 관한 연구」, 『법철학연구』 3권 1호 (2000), p.76.

12) 이나미,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서울: 책세상, 2001), pp.23-25.

13) Ibid., pp.32-35.

을 이뤄 만든 『독립신문』이 유교가 낮게 보았던 이익개념과 상업을 높게 평가하면서, 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 자유권과 경제적 독립을 강조했다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독립신문』에 나타난 자주독립사상은 경제적 자립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sup>14)</sup> 독립은 ‘자기가 자기 재주를 가지고 벌어들인 것’이라는 뜻을 지닌다. 무위도식하며 식객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새로운 사상이다.

그래서 박영호나 김옥균 등은 권리(right) 개념을 개인적 이익의 추구라는 의미를 지닌 통의(通儀)로 번역했다. 이전까지 집단 개념으로만 표현되던 백성은 서로 갈등하는 개인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재산권이 개인에게 속한다는 생각이 이러한 변화에 깔려 있다. 특히 개화기에 생명권은 재산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옥균의 「지운영사건규탄상소문」에서 보듯이,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백성은 양반에게 재산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sup>15)</sup>

개화기 한국의 지성인들이 서구 자유주의를 기독교와 함께 받아들일 수 있었던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기독교의 신은 일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통적 유교사회는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육체노동을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은 흠을 빚어 사람을 만드는 신이다. 육체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신이다. 그래서 한국 유교사회는 기독교의 신을 상놈의 신으로 여겼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는 중인과 상인 계층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 계층은 자유롭게 이윤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독교의 신관에서 일종의 해방을 발견했다.

그래서 개화기 기독교인들은 기존의 유교사회를 양반주의라는 이름으로

14) Ibid., pp.41-48.

15) Ibid., pp.58-62, p.159, n.61.

비판했다. 유교의 기본 덕목은 인(仁)이다. 인의 문화에는 남을 돕는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정적 측면도 지닌다. 친척 가운데 부자가 있으면 모두 그 집의 식객이 되어 무위도식하던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래서 가문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 또는 친족 이기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sup>16)</sup> 이러한 경제적 의타심이 양반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받았다. 개화기 기독교인들은 개인이 경제적 측면에서 자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교사들과 개화기 기독교인들이 조선 사회의 폐습과 악습을 타파하는 운동을 벌인 이면에는 개인의 경제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는 신앙의 문제는 신 앞에 홀로 서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여기는 기독교의 입장과 맞아 떨어졌다. 가족이나 가문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사람은 공동체 중심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으며, 개종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홀로 결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집단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한국은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상공업 중심의 중인 계층이 기독교를 선교사의 포교 이전에 자발적으로 수용했다. 그들은 경제적 독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따라서 신앙의 결단도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주도한 개화기 기독교인들은 동학혁명이나 의병운동 등 민중의 자생적 운동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보다 국왕을 찬양하는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편을 택했다.<sup>17)</sup> 당시 기독교가 적자생존과 같은 사회진화론적 생각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화기 기독교인들은 경제적 자립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

---

16) Ibid., pp.66-68.

17) Ibid., pp.138-149.

문에,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앞선 미국을 신이 선택한 나라라고 여겼다.<sup>18)</sup>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독교인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을 내세웠으며, 안창호 등은 무장독립투쟁보다 민족교육운동을 부르짖었다. 그 배경에는 한민족이 일본 민족보다 경제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우선 경제적 독립부터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의 독립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구한말 일어났던 물산장려운동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완용도 경성학당 운동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면하게 일해서 경제적 부를 만드는 근대자본주의적 인간이 되어야 경쟁하는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19)</sup>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초대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한국 기독교는 교세에 비해 많은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 끼칠 수 있었다. 남한 정부의 정치 체제를 왕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크게 성장한데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의 단위이어야 하는 개인은 서구 근대 사회가 생각했던 자율적 자아와 전적으로 일치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유교 문화의 영향이 가족중심주의 형태로 크게 남아 있었다. 한국 사회는 전통과 역사와 같이 공유된 전체의 연대와 의무를 넘어서는 자아를<sup>20)</sup>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60년대부터 밀어닥친 근대화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는 ‘우리 가문이 잘 살아보세’라는 가족주의와 맞물려 상승작용을 했다. 장남이나 장녀가 어린 나이에 공장에

18) Ibid., pp.87-90, p.166, n.127.

19) 『독립신문』 1897년 4월 15일자 논설. 이나미, op. cit., pp.81-82.

20) 송재룡, op. cit., pp.92-93.

취직해서 봉급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송금하던 모습은 60,70년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필우는 유교문화가 한국경제를 설명하는데 더 유용한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쟁에서 진 한계기업 덕분에 경쟁의 효율성이 있기에 유교문화에 따르는 경제체제에서는 한계기업을 무자비하게 퇴출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21)</sup> 하지만 바로 그러한 문화풍토 때문에 빨리 퇴출되어야 하는 기업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기업을 유지하며,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며, 국제경쟁력에서 뒤지는 상황을 IMF 경제 위기를 통해 잘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유교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에 비해 기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때로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에 비해 이기적이라는 평가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가족중심주의인 유교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가족 개념을 공통된 혈연이나 지연 개념을 넘어 공통된 신앙공동체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도 공동체의 안과 밖을 엄격하게 구분하며, 공동체의 안에 적용하는 기준과 공동체의 밖에 적용하는 기준을 다르게 두는 가족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교회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다. 이왕이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식당이나 상점을 이용해주자는 태도가 전형적인 예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공동체는 확대된 의미의 개인이다. 자유주의에서 개인 개념에 경제적 독립이 중요했듯이, 각 교회공동체도 경제적 독립주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를 강조하며 교회들의 연합조직을 강조하는 서구 교회들과는 달리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을 지향하게 되었

21) 이필우, 「공동체적 인성주의와 방법론적 개인주의」, 『재정논집』, Vol.13, No.2 (1999), pp.3-4, pp.20-26.

다. 이는 교단들의 분열, 개 교회의 성장지향주의, 수평이동하는 기독교인을 둘러싼 개교회 간의 경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 교회는 한국 사회의 다른 소규모 공동체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한국 사회는 기독교의 수용과 더불어 서구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서구 자유주의의 전제인 독립적 자아를 완전히 성취하지는 못했다. 도리어 경제적 독립의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 들으로써 서구 자유주의를 유교의 가족주의와 절묘하게 결합했다. 서구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모든 것을 건다. 사회는 이윤추구의 장일 뿐 공동선이나 공동 덕목을 개인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 가족 등을 단위로 하는 소규모 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노력하며, 그 집단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사회는 그 집단들의 이윤추구의 각축장에 머물고 만다. 경제적 자유주의에 약육강식이라는 사회진화론이 함축되어 있듯이, 소규모 집단들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억눌러도 된다는 함축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사회에 가족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서구 자유주의의 수용을 가능하게 했던 한국 기독교마저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기독교는 개인들의 경제적 이윤추구에 나름대로 윤리와 규범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서구 시민사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는 달리 한국 사회에는 소규모 이익집단들 사이의 이윤추구 각축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등의 자본주의적 윤리는 나타나지 않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독교는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 III. 서구사회에 나타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먼저 서구사회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어떤 모습을 갖고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에 이르러 공동체주의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자유주의를 비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양자의 상호공격을 통해 양자가 어떻게 수렴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 수용된 자유주의가 공동체주의의 왜곡된 형태인 집단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공동체주의의 등장 배경

서구 근대사회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었다. 서구 근대문명의 전제는 자율적 인간 이성이다. 예를 들어, 칸트는 이성이 감성을 극복할 때 인간성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 막스 베버(Max Weber)도 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성이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직과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비이성적이거나 종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비합리성의 합리화'가 서양 근대주의의 모토이다.<sup>22)</sup>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주의의 전제인 데카르트적 주체(cogito)가 비역사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가정을 공격한다. 개인이 공동체와 무관하게 도덕적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것이다.<sup>23)</sup> 이미 에밀 부르너(Emil Brunner)와 같은 학자는 이성과 정념을 분리시키고 이성으로 정념을 통제하려 했던 서양 근대문화가 무너질 위기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sup>24)</sup>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개인은 역사성과 사회성이 탈색된 존재가 아

22) 이성구, 「민족의 분단과 통일: 민족공동체 형성과 통일방안」, 한국정치학회, 『민족공동체와 국가발전』, 1 (1989), pp.366-367.

23) 송재룡, op. cit., pp.87-88.

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칼 마르크스(Karl Marx)도 인간을 사회관계의 총합이라고 규정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따르면, 주체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데리다는 선형적으로 미리 주어진 전제조건에 토대를 두는 사고체계를 모두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으로 거부한다. 푸코도 역사와 사회를 넘어서 보편적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캉도 절대적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sup>24)</sup> 자율적 자아가 일종의 도덕적 면책특권을 지니면서 자아 실현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생각은 환상으로 치부된다. 폴 틸리히(Paul Tillich)에 따르면, 자율적 자아는 절대화되어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존재론적 불안을 체험하는데, 기독교의 이상과 가치가 이 공백을 메워주었다. 하지만 서구의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버림으로써 공동체적 토대를 제공하는 신앙 문화를 잃어버림으로써 고독과 소외에 시달리는 원자적 개체가 되고 말았다.<sup>25)</sup>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덕의 상실』에서 근대성 자체를 공격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상대주의적 무질서 가운데 있으며, 모든 도덕판단을 개인의 선호에 맡기는 정의주의(emotivism)에 빠져 있다.<sup>27)</sup>

그런데 1980년대에 공동체주의가 강하게 등장한 이유는 좀 더 구체적이다. 1980년대 미국은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에 시달렸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사회보장 정책이 후퇴하면서 사회 대신 가족이 경제적 보장을 해주는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대신 가족 중심적 가치관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서 자유주의가 상대적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었던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자유주의 전통도 비판적 시각

24) 이성구, op. cit., p.368.

25) 신조영, 「미국적 가치관 비판: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중심으로」, 『미국사 연구』vol.13 (2001), pp.194-198.

26) 송재룡, op. cit., p.89, pp.94-97.

27) 박정순, 「자유주의의 건제」, 『철학연구』45 (1999), pp.28-29.

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sup>28)</sup>

## 2. 자유주의자의 자아 개념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체제에 위기가 온 이유를 공민적 덕목(civic virtue)가 사라진데서 찾는다.<sup>29)</sup> 특히 자유주의 체제의 일부 단점을 극복하려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샌들(Sandel)이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을 자율적 자아로 여기는 자유주의의 인간관에 결함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의 정체성은 공동체에 의해서도 주어진다. 인간은 자발적이지만 상황의 영향도 받는 존재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롤즈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율적 개인이 이윤 추구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다. 도리어 공동체는 개별 자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도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sup>30)</sup> 그래서 그는 자아를 구체적인 역사 공동체에서 구성되는 자아로 여긴다.

예를 들어 샌들(Sandel)에 따르면, 자아는 선형적으로 주어져 있기보다, 공동체의 목표를 성찰함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다. 롤즈의 경우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들의 경계선을 선형적으로 주어지지만, 샌들의 경우 개인의 정체성은 자기성찰이라는 행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아와 다른 자아의 경계선이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고정된 자기 이해에 이를 수 있다.<sup>31)</sup>

기독교철학자 맥킨타이어(MacIntyre)도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권리 개념이 중세 말까지 없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

28) 김정오, *op. cit.*, pp.72-73.

29) 김동수, 「현대공동체주의의 사상적 기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Vol.26, No.3 (1992), p.8.

30) 김정오, *op. cit.*, pp.77-79.

31) 유종원, 「공동체주의의 공동체 개념과 의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사회과학연구』9 (1998), pp.364-365.

자아의 권리가 선형적이지 않음을 입증한다.<sup>32)</sup> 따라서 개인에게는 좋음을 자기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sup>33)</sup> 도리어 좋은 삶은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들은 공동체에 있는 공동선을 인정해야 한다.<sup>34)</sup> 자아는 공동체적 삶과 가치를 수용할 때 형성되는 것이다.<sup>35)</sup> 인간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간섭을 인정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통의 규범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이 모두 칸트가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 판단자라면 그 규범을 받아들일겠지만,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거래에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 다른 가치나 규범을 위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옳음을 구현하는 정의를 위해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sup>36)</sup>

### 3. 자유주의의 중립주의

자유주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 자체가 특정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지니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비로소 한 공동체 안에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지닌 개인들과 집단들이 공존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들에 대해 관용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자유주의 체제에는 이미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들어 있다. 자유주의 사회가 정말 가치중립적이

32) 권용혁, 「열린 공동체주의를 향하여」, 『철학연구』55 (2001), p.234.

33) 이진우, 「공동체주의의 철학적 변형—공적과 정체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Vol.42 (1998), pp.247-248.

34) 권용혁, *op. cit.*, pp.231-232.

35) 박정순, *op. cit.*, p.18.

36) 이나미, *op. cit.*, pp.35-37.

라면 자유주의라는 가치관을 반대하는 입장도 허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협동을 통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나름대로의 입장을 지니고 있다.<sup>37)</sup>

#### 4. 공동체주의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과 권리 대신 공동체와 선을 강조한다. 자유주의자가 의무론을 옹호한다면, 공동체주의자는 목적론을 옹호한다. 이 점에 있어서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은 목적론적 사고를 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와 헤겔(Hegel)을 계승한다.<sup>38)</sup> 예를 들어,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오늘날 도덕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개인을 목적론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데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일체감이나 궁극적 기준이 사라졌다.<sup>39)</sup>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기독교를 거쳐 근대 도덕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덕 개념을 살펴본다.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가 득세한 서양 근대는 사실(Is)과 규범(Ought)을 분리시킨 결과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개인의 자율성을 전제하는 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아는 자아의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한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상황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자아의 선(善)은 공동체 선의 이야기(narrative)와 연결될 때에만 있을 수 있다.<sup>40)</sup> 왈쩌(Michael Walzer)도 각각의 공동체가 걸어온 역사를 강조한다.

그런데 공동체주의는 잘못하면 전체주의에 빠지기 쉽다. 공동체의 공동 선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

37) 박정순, *op. cit.*, pp.24-25.

38) 유종원, *op. cit.*, pp.357-358.

39) 김동수, *op. cit.*, p.282.

40) 김정오, *op. cit.*, pp.80-82.

공동선도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율성도 보장하는 방식의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의 공동선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있어서 의견이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공동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가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혈연이라는 요소인가, 아니면 지리적 요소인가? 현대인의 삶은 매우 유동적이기에 공동체 구성원의 충성도가 떨어진다.<sup>41)</sup>

맥킨타이어나 샌들은 지역공동체나 시민공동체를 제안한다. 하지만 자급자족하는 경제 기반이 없는 경우 국경 없는 시장경제 때문에 공동체 내부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sup>42)</sup> 왈쯔는 분권화된 민주주의적 사회주의(a decentralized democratic socialism)를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정의와 평등은 구체적인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의 제안은 여러 공동체서 서로 관용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체제를 염두에 둔다. 개인의 시민권을 존중하면서,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에 관용을 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의 내면적 삶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시민 공동체의 한 모형이 될 수 있다. 이는 노직이 주장하는 메타 유토피아(Meta-Utopia)적 공동체 개념과 유사하다. 노직에 따르면, 공동체 전체의 기반은 자유지상주의에 있지만, 그 안에서 이념을 달리하면서도 공존하는 각종 소규모 공동체에 개인들은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sup>43)</sup>

롤즈는 노직에 비해 공동체들을 감싸는 국가의 질서에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넣는다. 사람들의 타고난 자질을 공동의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이다.<sup>44)</sup> 그래서 그는 차등의 원칙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

41) 유종원, *op. cit.*, pp.370-373.

42) 황경식, *op. cit.*, p.12.

43) *Ibid.*, pp.12-13.

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최소수혜자의 복지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이루고자 한다.<sup>45)</sup>

한편 옹거(Unger)는 전체 사회를 공동체들의 연합으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때 각 공동체는 세습종교나 인종에 의해 형성되지 않고, 공유된 경험과 참여에 의해 형성된다. 옹거는 공동체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다른 공동체주의자들과 다르다. 전체 사회는 자신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공동체들에게 이양한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강조된다. 그래서 일하는 환경이나 관심에 가까운 조직체에게 많은 주도권을 주며, 그 권한과 특별히 관련되는 공공단체에 권한을 넘겨준다.<sup>46)</sup>

## 5. 자유주의자의 반론

이상의 논의를 보면 자유주의자라고 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아는 존재론적 또는 형이상학적 자아가 아니다. 정치적 자아일 뿐이다. 공통된 가치관에 합의하지 못하는 다원적 서구정치 문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을 가리킬 뿐이다. 또한 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아에게는 절대적 자율성이 없다. 특정 목적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정황적 자율성만 있을 뿐이다.<sup>47)</sup> 자유주의는 고립된 개인을 전제하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존재를 인정할 뿐이다.<sup>48)</sup>

더 나아가서 자유주의가 함축하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를 조장하지 않

---

44) Ibid., pp.13-14.

45) 박정순, op. cit., p.27.

46) 김정오, op. cit., pp.87-92.

47) 박정순, op. cit., pp.21-22.

48) 이영환, 소병희, 『Friedrich von Hayek 에 있어 개인주의 사상과 시장질서』, 『경제학 연구』, Vol.41, No 3, pp.296-297.

는다.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일을 행할 자유가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또한 샌들이 주장한 것처럼 개인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만 자기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저지르는 잘못을 사회적 과정을 통해 교정할 수 있다.<sup>49)</sup>

이는 서구에서 자유주의가 성립한 과정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서구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했던 봉건사회의 질서와 절대 권력에 대해 저항하면서 출발했다. 자유주의자가 개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공동선의 추구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을 막기 위한데 있었다.<sup>50)</sup>

롤즈도 『정의론』에서 사용했던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른 정당화를 포기한다. 계약당사자들은 이미 사회를 공정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제도가 역사적으로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sup>51)</sup>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서로 결합한 자유공동체주의(liberal communitarianism)를 내놓을 수 있다. 자유공동체 또는 시민공동체라는 생각은 문화적 공동체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결합시킬 수 있다. 세계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경우 사적인 문화공동체가 번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sup>52)</sup> 이는 하나의 가치만을 전체 사회에 부여함으로써 가치의 획일화를 낳고, 더 나아가서 전체주의라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공동체주의의 약점을 보완해줄 것이다.<sup>53)</sup>

김리카(Kimlicka)에 따르면, 자유주의 국가의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늘리는데 있다. 그래서 공동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

49) Ibid., pp.300-307.

50) 김비환, 「고전적 자유주의 형성의 공동체적 토대」, 『정치사상연구』2 (2000 봄), pp.221-235.

51) 박정순, op. cit., p.23.

52) 황경식, op. cit., p.15.

53) 이승환, 「한국에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의는 적실한가?」, 『철학연구』, 45 (1999), p.61.

서 사회적 삶의 공동체적 요소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런데 공동선은 개인의 선 개념과 개인의 선택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이 점에 있어서 공동선과 개인의 자율성은 양립할 수 있다.<sup>54)</sup>

사실 공동체주의자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쩔 수 없는 근대주의자이며 자유주의자이다. 맥킨타이어나 테일러 모두 근대 자유주의를 인정하고 공동체주의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이후(post-liberalism)의 철학이다.<sup>55)</sup> 그런 점에서 현대의 공동체주의는 그리스 도시국가에 토대를 두는 고전적 공동체주의와는 달리 자유주의를 전제하는 민족국가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헤겔(Hegel)이 민족국가라는 맥락에서 자유주의(법)와 공동체주의(인륜)의 균형을 모색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태도는 원래의 맥락을 놓친 셈이다.<sup>56)</sup>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인정해야 하는 두 가지 도덕적 직관을 발견한다. 개인의 권리라는 가치와, 공동선이라는 가치이다. 공동선이 없는 경우 개인은 깊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두 가지 가치 모두 인간에게 필수적인 도덕적 직관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나 공동체주의자 모두 상대방의 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는 바람직한 사회라면 공유된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공동체주의도 공동선을 지닌 사회 안에서 개인의 자발성은 남겨두려 한다.<sup>57)</sup>

그래서 “공동체는 개인의 충동이 없으면 활기를 잃고, 이 충동은 공동체의 공감에 없으면 시들어 버린다”는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지적

---

54) 설한,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 김리카의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한국과 국제 정치』, Vol.16, No.2 (2000), pp.419-420.

55) 박정순, op. cit., pp.34-36.

56) 김동수, op. cit., pp.16-20.

57) 황경식, op. cit., pp.6-10.

이 옳다.<sup>58)</sup>

#### IV. 나가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서구의 공동체주의가 사실 서구 근대사회의 자유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근대성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한국사회는 인간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문제의 원인은 자유주의가 과도하고 공동체주의가 부족한데 있지 않다. 도리어 자유가 부족하며, 유교문화가 잘못 적용된 가족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집단이기주의는 왜곡된 공동체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에 바탕을 두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구성해나가는 구성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없었다.<sup>59)</sup> 올바른 자유주의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참된 공동체주의도 경험하지 못한다. 공동체 정신이 필요한 도시에서는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동향에 토대를 두는 공동체의식은 지역감정으로, 지연, 혈연, 학연 등 관계에만 토대를 두는 공동체의식은 연고주의로, 삶의 일부에만 기반을 두는 공동체의식은 집단이기주의로 나타났다.<sup>60)</sup>

53개 문화 가운데 한국의 개인주의 지수가 43등이라는 호프슈테더(Hofstede)의 연구결과도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하다.<sup>61)</sup> 개인의 자율성에 토대를 두는 자유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율적 개인들의 합리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 공동선에 이르는 길도 막힐 것이다. 자유

58) 이진우, 「자유와 한계 그리고 공동체주의」, 『철학연구』 45 (1999), p.47.

59) 유종원, op. cit., p.374.

60) Ibid., pp.353-355.

61) 오경환, 「현대 개인주의와 공동체를 위한 연대」, 『가톨릭사회과학연구』, Vol.9, No.0 (1998), p.10.

주의에 따르면, 개인이 행동하거나 의사결정할 때 사회나 집단의 명분이나 이익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된다. 한국 상황에서 가족주의도 일종의 집단주의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율적 개인들이 공동선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족주의, 집단주의가 해체되었지만, 그 자리에 자율적 개인이 들어서기보다 집단이기주의가 들어섰다. 기독교 교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새로운 대안 공동체를 찾게 되었다. 동창회 모임이 활발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기독교 교회공동체는 60,70년대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원자화된 개인들에게 새로운 대안공동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밖으로는 집단이기주의의 집단으로 비치기 시작했으며, 안으로는 하나의 공동선을 강요함으로써 각 개인의 자율성과 합리적 판단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올바른 의미의 공동선을 구성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빈곤층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기업체나 감시받지 않으면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는 정치인들을 견제함으로써 한국의 공동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시민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sup>62)</sup>

---

62) Ibid., pp.8-14.

## 참 고 문 헌

- 이필우, 「공동체적 인성주의와 방법론적 개인주의」, 『재정논집』, Vol.13, No.2 (1999), pp.3-29.
- 황경식, 「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인가? - 개인권과 공동선의 갈등과 화합 -」, 『철학연구』, Vol.45, No.0 (1999), pp.1-15.
- 박정순, 「자유주의의 견제」, 『철학연구』45 (1999), pp.17-46.
- 이승환, 「한국에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의는 적실한가?」, 『철학연구』, 45 (1999), pp.61-99.
- 김성국, 「사이버 공동체 형성의 과제」, 한국사회이론학회편, 『사회 이론 - 인터넷과 우리 사회』(2000), pp.29-53.
- 김정오, 「공동체주의와 법에 관한 연구」, 『법철학연구』 3권 1호 (2000), pp.71-100.
- 이진우, 「자유와 한계 그리고 공동체주의」, 『철학연구』 45 (1999), pp.47-60.
- 유종원, 「공동체주의의 공동체 개념과 의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사회과학연구』9 (1998), pp.353-377.
- 김동수, 「현대공동체주의의 사상적 기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Vol.26, No.3 (1992), pp.7-21.
- 강대현, 「현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시민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시민교육연구』 31 (2000, 9월), p.1.
- 권용혁, 「열린 공동체주의를 향하여」, 『철학연구』55 (2001), pp.225-243.
- 김동수,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Vol.28, No.1 (1992), pp.275-296.
- 김비환, 「고전적 자유주의 형성의 공동체적 토대」, 『정치사상연구』2 (2000 봄), pp.221-246.
- 설한,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 김리카의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한국과 국제정치』, Vol.16, No.2 (2000), pp.399-430.
- 신조영, 「미국적 가치관 비판: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중심으로」, 『미국사 연구』 vol.13 (2001), pp.193-212.

이진우, 「공동체주의의 철학적 변형--공적과 정체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Vol.42 (1998), pp.243-273.

로버트 뱅크스,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서울: 여수론, 1991).

손호철,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안병영, 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현실.대응』(서울: 나남출판, 2000).

제러미 브레처 외, 『아래로부터의 세계화』(경기: 아이필드, 2003).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서울: 문화과학사, 2000).

이나미,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서울: 책세상, 2001).

송재룡, 『포스트모던 시대와 공동체주의』(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K C I

## ABSTRACT

### A Study on Communitarianism in Korean Context

Lee, Kyung Jik  
(Cheon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meaning of communitarianism in Korean context in relation to Confucianism. For this purpose, liberal-communitarian debate was explained in the context of Korean Confucianism.

And the idea of Christian community was compared with Korean concept of community spirit. The Christian community opens the possibility of the community in which equality and justice are respected. In this meaning, neo-liberalism in Korea must be under criticism. Meanwhile, Korean collective egoism must be overcome. The meaning and idea of sound community is derived from biblical community.

K C I